

# 야구

6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서 팬들과 작별한 이범호, 그가 남긴 의미있는 유산



KIA 이범호가 13일 광주 한화전에서 은퇴식을 갖고 정든 그라운드와 작별을 고했다. 은퇴식을 모두 마친 뒤 동료들의 행가래를 받았고, 송별사를 마친 뒤에는 아내 김윤미씨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불빛을 밝히며 이범호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했다(사진 왼쪽부터).

# 1 '대구 출신' 이범호, 레전드급 은퇴식 감동

- 2 개막전 후 첫 2만500석 매진
- 3 타이거즈 출신 9번째 은퇴식
- 4 외부FA로 9년 동행 성공사례
- 5 팀 미래 박찬호에 등번호 선물

영원한 '꽃' 이범호(38)가 화려하게 떠났다. 소속팀 KIA 타이거즈에서 누구보다 성대하게 은퇴식을 치르며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게 됐다.

KIA는 1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전에서 이범호의 은퇴식을 진행했다. 이날 KIA는 이범호의 은퇴식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사전 티켓, 유니폼 등을 제작해 팬들과 함께 떠

나가는 이의 길을 배웅했다.

2만500석은 모두 매진됐다. KIA가 올해 개막전(3월 23일) 이후 처음으로 기록한 홈 매진. 그 만큼 이범호의 떠나는 길을 함께 하려는 팬들이 많았다. 더군다나 데뷔 팀인 한화의 원정팬들도 1루 측에 자리해 그의 현역 마지막 모습을 더욱 더 뜻 깊게 만들었다.

이범호는 타이거즈 출신 선수 중 은퇴식을 한 9번째 선수가 됐다. 김성한부터 공동 은퇴식을 한 최희섭과 서재응까지, 누구 한 명도 이름이 가려지지 않은 '레전드'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이범호의 은퇴식이 KIA에 남긴 메시지는 매우 특별하다. 우선 지역, 출신 팀

에 상관없이 누구든 팀에 크게 기여하면 '레전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줬다는 점이다.

이범호는 대구가 고향으로 한화에서 KBO리그에 데뷔했다. 광주를 연고로 하고 있는 KIA와는 해외 진출을 마치고 난 이후인 2011년부터 인연을 맺었다. 당시 KIA는 외부 프리에이전트(FA)를 통해 이범호를 데려왔는데, FA 재계약까지 다시 하는 인연 끝에 무려 9년을 함께 '동행'했다. 이범호는 KBO리그에서 2001경기를 뛰면서 KIA 소속으로 무려 881경기를 소화했다.

지역 연고와 소속에 상관없이 팀에 기여한 것만을 정확하게 평가한 결과로 성

대한 은퇴식이 열렸다. 이범호가 단순히 선수 개인으로만이 아니라 팀에 '선배'로서 미친 영향도 상당했기에 가능했던 시나리오였다.

KIA는 은퇴식에서 이범호의 등번호 대관식까지 진행했다. 이범호는 '25' 등번호를 팀의 미래인 박찬호(24)에게 넘기며 특별한 동기부여까지 이끌었다. 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 순간에 교차하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자신의 커리어를 마치면서 팀에 또 다른 유산까지 남긴 사나이. 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계절에 또다시 피는 것임을 보여준 그의 마지막 발걸음이었다.

정운상 기자 award@donga.com

KBO리그 경기결과		▶ 14일
잠실	삼성 0 : 2 LG	
인천	키움 3 : 4 SK	
사직	두산 8 : 2 롯데	
창원	KT 4 : 1 NC	
광주	한화 7 : 10 KIA	



켈리 윌슨

## 켈리·윌슨 18승 합작

LG 듀오 전반기 ERA 2점대·9승씩 벌써 외인 선발 지난 시즌 승수 충족

외국인 투수 2명이 2점대 평균자책점(ERA)을 마크하며 전반기에 18승 고지에 도달했다. LG 트윈스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며 전반기 외인 선발투수의 등판을 모두 마쳤다.

케이시 켈리는 14일 잠실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최고 151km의 빠른 포심 패스트볼과 전체 투구수 101개 중 절반에 가까운 44개를 차지한 낫카 큰 커브를 앞세워 삼진 6개를 잡았고 2안타 1볼넷만 허용하는 완벽한 투구를 보여줬다.

켈리는 이날 승리로 전반기 마지막 선발 등판 경기에서 9승(9패)에 성공했다. ERA 역시 2.97에서 2.77로 낮추며 2점대를 지켰다. 팀 동료인 타이러 윌슨은 13일 9승(5패)을 먼저 거뒀다. 역시 2점대 ERA(2.55)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LG는 외국인 선발 투수 듀오가 시즌을 거듭 할수록 위력을 더하며 후반기 2, 3위 도전과 나아가 포스트시즌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윌슨과 켈리는 전반기 18승을 합작했다. 지난해 외국인 헨리 소사(현 SK 와이번스)와 윌슨이 나란히 9승씩을 기록한 시즌 전체 승리와 같은 숫자다. 켈리스트라트(선발 등판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도 나란히 16회씩 기록 중이다.

LG는 외국인 투수 듀오가 확실한 1·2선 발 역할을 해주며 선발진 로테이션 전체가 안정적인 전력을 갖게 됐다. 불펜 역시 힘을 비축하고 있다. 후반기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타선은 박용택이 부상에서 복귀했고, 교체 외인선수 카를로스 페게로가 조만간 1군 엔트리에 합류한다.

LG는 16~18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SK와 3연전으로 전반기 일정을 마친다. 임창규 등 국내 투수 3명이 선발로테이션을 맡을 예정이다. 윌슨은 20일 올스타전에 나뉘는 스타 선발로 등판하며 켈리는 26일 후반기 시작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합설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SK 선수들이 14일 인천 키움전에서 4-3으로 승리하며 주말 3연전 위닝시리즈를 확정된 뒤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뻐하고 있다.

인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 소사 9K·4연승... '존재의 이유' 증명

키움 상대로 7이닝 단 1실점 V투 SK가 원했던 이닝이 터 능력 뽐내

헨리 소사(34)가 '승리'로 SK 와이번스의 외국인 투수 교체 이유를 입증하고 있다.

거침없이 삼진을 속아냈다. 14일 인천S

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소사는 7이닝 4안타 9삼진 1볼넷 1실점 쾌투를 펼쳤다. 팀의 4-3 승리에 주춧돌을 놓은 소사는 시즌 4승으로 전반기를 마쳤다. 2연속경기 켈리스트라트플러스(선발 등판 7이닝 3자책점 이내)를 작성한 소사는 복귀 후 처음으로 평균자책점을 3점대(3.64)까지 낮췄다. SK가

브룩 다익슨의 교체 외국인 선수로 시즌 도중 합류한 소사에게 원했던 '이닝 이터'로서의 장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최고 구속이 150km에 이르는 직구와 포크볼로 키움 타선을 철저히 틀어막았다. 공 96개로 7이닝을 책임지면서 직구(43개)로 4차례 삼진을 속아냈고, 포크볼(45개)로 5개의 삼진을 챙겼다. 특히 키움 타자들은 소사의 포크볼에 속아 번번이 방망이를 헛들리기 일쑤였다. 소사의 '삼진쇼'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났다. 1-1로 맞선 7회 2사

1·2루 때 타석에 들어선 대타 박병호를 지구 3개로 헛스윙 삼진 처리했다.

위기를 극복한 소사에게 적절한 득점 지원도 보태졌다. 7회 말 제이미 로맥과 정윤이 합작해 2-1로 승부의 추를 재차 기울이는 귀중한 한 점을 만들었다. 8회에는 한동민의 적시타로 2점을 더 달아냈다. SK는 마무리 투수 하재훈이 9회 2실점하며 키움에 한 점 차 추격을 허용했지만, 4-3 리드를 지켜 소사에게 시즌 4승 기쁨을 안겼다.

인천 | 서덕명 기자 seody3062@donga.com

## 정운찬 총재-10인 감독, 이번엔 볼 일 없다?

새 규칙 함께 의논할 좋은 기회인데 이번 올스타전엔 행사 준비 공문만

KBO리그 올스타전은 팬들을 위한 성대한 이벤트 외에도 여러 의미 있는 기능이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시즌 중 유일하게 모두 모이는 현장 감독들과 KBO 총재가 만나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간담회다.

구분능 전 총재는 올스타전 감독 간담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국가대표 전임 감독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 자리



정운찬 총재

에서 형성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과거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올스타전이 열리는 전날 총재와 리그 감독들이 자리를 함께 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올해 올스타전이 열리는 20일 정운찬 KBO 총재 스케줄에는 감독들과 간담회 일정이 없다. 각 팀 감독들은 오후 3시까지 창원NC파크에 도착

해 행사를 준비해 달라는 공문만 발송했다. KBO관계자는 14일 "총재와 감독의 간담회는 먼저 사령탑들이 자리를 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는 감독들이 이와 관련해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총재는 취임과 함께 소통을 강조해왔다. 올스타전 때 현장 감독들과 만나 여러 제도 개선, 그리고 관중감소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귀를 활짝 열 것으로 기대했지만 먼저 만남을 청하지 않은 셈이다.

LG 트윈스 류중일 감독은 이날 잠실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경기에 앞서 "미디어데이는 시즌 전이기 때문에 그동안 새롭게 적용된 규정, 규칙 등에 대해 다 함께 모여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며

"올해는 아무런 일정이 없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감독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 만큼 사무총장과 심판위원장에게 함께 하는 티타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3피트 수비방해, 심판 재량 비디오판독, 홈 출발 규정, 구장 안전 관리 등 올 시즌 KBO는 시즌을 치르면서 여러 곳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됐다. 커미셔너로 불리기를 원하는 정 총재가 감독들을 꼭 만나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정 총재는 취임 첫 번째 올스타전을 앞두고 1군 감독 10명, 퓨처스 감독 10명을 연이어 만났지만 올해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셈이다.

합설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